

## 오리 관측의 필요성과 과제



허 덕 축산관측 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근 몇 년간 오리 생산액이 매년 5천억 이상 증가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괄목할 만하다. 소위 잘나간다는 IT부문이나 BT부문의 성장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적으로, 축산업계의 블루칩으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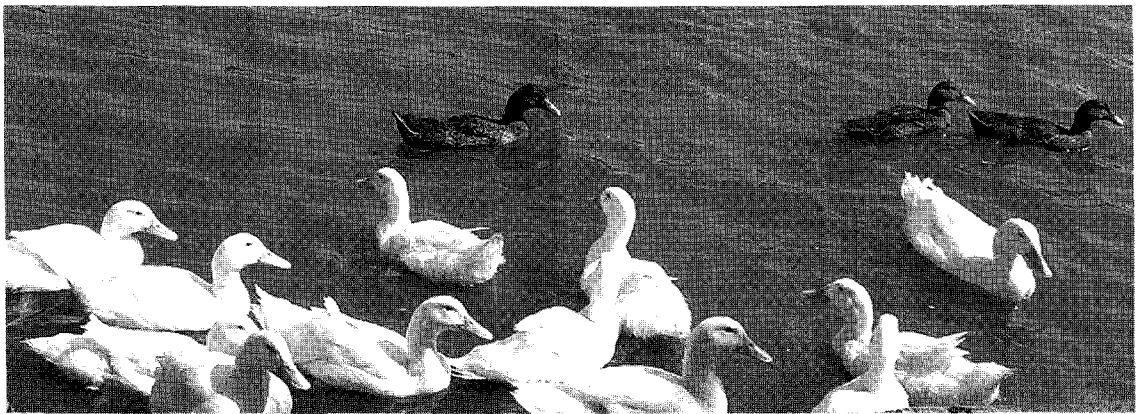
오리 사육마리수는 2009년 12월 기준 1,273만 마리로 2000년의 500만 마리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호당 사육마리수도 2000년의 395마리보다 크게 증

가한 2,413마리로 농가의 규모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참살이(Well-being)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리고기의 특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오리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 3만 3,220마리였던 종오리 수입이 2009년 27만 1,210마리로 716.4%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도입예정수를 포함한 2010년 종오리 수입은 46만 2,080마리로 2009년에 비해서도 70.4%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 주산지는 전남, 전북, 충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이들 3개 도에서 전체 오리의 83.6% 이상이 사육되고 있는데, 특히, 전남 지역의 사육호수 비중은 전체의 15.8%에 불과하지만 사육마리수가 420만 마리 이상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한다. 전북의 오리 사육규모는 전체의 25.5%, 충북은 14.7% 정도이다.

오리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시장 유통물량의 약 80%를 계열업체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육계에 비해서도 계열화가 진행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오리산업이 산업적 면모를 갖추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육계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계열주체의 행동 변화에 따라 오리 수급 및 가격 상의 변화가 클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해 주기도 한다.



최근 대형마트, 인터넷판매, 홈쇼핑 등 유통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가정 내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소매단계에서는 가든, 오리 전문점의 소비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의 외식편중 현상이 심하다. 이러한 점은 주 수요처의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오리산업은 최근 몇 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수급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측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적 위치에 걸맞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까지 오리관측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생산·사육·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사육마리수, 가격 예측 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수급조절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농가 소득 및 물가 불안정이 야기되면서 오리에 대한 관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업계에서 관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올해 9월부터 오리 관측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등은 이미 축산관측 품목에 들어 있어 주기적으로 관측 결과가 제시되고 업계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오리 관측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급과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시물레이션 모형이 개발되었다. 모형을 통해 오리 사육마리수는 전월 사육마리수와 도입의 영향도 크지만, 병아리 입식의 영향도 적지 않음이 밝혀졌다. 한편, 오리에 대한 수요는 가격변동에 의한 영향 보다는 소득변동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오리고기가 주로 보양식으로 소비되는 현실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리 수급 및 가격 시물레이션 모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리관측 기법도 타 축종 관측기법과 유사하게 편집회의, 조사표 작성 및 발송(모니터/표본농가), 설문조사 실시, 현지 조사 및 지역자문회의, 조사결과 분석 중앙자문회의, 최종 검토 회의, 최종 교정 및 인쇄, 관측 분기보 발행 및 확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표본농가 통계적 기법에 의해 228개의 샘플을 추출하고, 표본 농가 선정 등의 작업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디어 2010년 8월 25일 첫 오리관측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관측보에는 오리 사육, 오리고기 수급, 가격 등에 관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오리 관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통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육마리수와 생산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되고 있으나, 1년 단위로 공표되어 적시에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각 연도의 12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계절성을 고려한 사육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향후 통계청을 통해 오리에 관한 통계자료가 발표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확한 공급량 파악을 위한 재고량 조사, 수요변동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작업 등등 아직 과학적이고도 정확한 관측을 위해 극복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제 처음 시작된 오리관측은 관련 통계 및 다양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면서 향후 더욱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등 급성장에 따르는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